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생명보험 가구가입률 하락

- 생보협회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2,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‘제12차 생명보험 성향조사’에 따르면 가입률은 84.5%로 우리나라 10가구당 8곳 이상이 민영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고 연간보험료도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함.
 - 이는 지난 2006년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가입률인 85.7%보다 1.2%p 하락한 것이며,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임.
 -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가입건수는 평균 4.4건으로 지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, 연간 납입보험료는 12.8% 증가한 498만원(월 41.5만원)을 기록함.
- 민영생명보험의 주요 상품별 가입현황은 질병보험(87.3%)이 가장 많았으며, 상해·재해보험(71.1%), 사망보험(37.1%), 연금보험(26.5%), 저축성보험(16.7%), 변액보험(8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- 생보협회는 2006년 이후 종신보험의 인기가 하락하고 사망보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생존보장(입원, 수술 등)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임.
 -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2,400만원 이상의 가구가 주로 질병과 상해·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반면, 연소득 4,800만원 이상의 가구는 투자상품인 변액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생명보험의 계약유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2007년 이후 중도해약이나 효력상실을 경험한 가구는 13.9%로 3년 전 조사에 비해 4.5%p 감소해 계약유지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.
- 또한 향후 생명보험에 추가 가입할 의향에 대해서는 ‘가입의사가 있다’라는 응답이 28.0%로 나타나 3년 전에 비해 2.6%p 감소함.
 - 추가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‘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72.4%)’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.

(제12차 생명보험 성향조사, 생명보험협회, 9/22)